

“오늘 즐거운 기억, 일상생활로 이어지길”

총무원장 자승스님

이주민 어울림한마당
단체·대안학교 찾아
표창장 자기기금 전달
임직원 청소년 격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이주민들을 위한 축제 한마당에 참석해 이주노동자들과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6일 경기도 오산시 민화관에서 열린 ‘제6회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에 참석해 이주민들을 격려하고 우리사회가 이주민들과 함께 화합하고 소통하는 사회가 될 것을 기원했다.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은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가 주최하는 불교계 대표적인 이주민 축제로, 네팔, 스리랑카, 몽골,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아시아 국가 출신 이주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이국 생활에서 겪는 외로움과 고단함을 잠시 잊고 흥겨운 축제 한마당을 즐겼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16일 경기도 오산시민화관에서 열린 ‘제6회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에 참석해 이주노동자들과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은 행복한이주민센터 다문화가족 아이들과의 만남.

개회식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국제화시대이자 다문화사회인 오늘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이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 우정을 나누는 것은 뜻 깊은 일이다. 체육경기와 다양한 국가의 전통문화를 경험하

고 오늘의 즐거운 기억이 일상생활의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마주협 상임대표 진오스님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리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광속악 오산시장도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

만 모두가 공동체의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총무원장 스님은 불교계 이주민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주협 상임대표 진오스님에게 자비나눔 기금을 전달했으며, 오산 지역에서

이주민사업과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에 기여해온 김경애 행복한이주민센터 공동대표에게 표창장을 전달하며 노고를 치하했다. 이와 함께 이주민 배구대회에 앞서 직접 시구해 참가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사단법인 나눔과 비움이 운영하고 있는 불교계 유일의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인 오산 행복한학교를 찾아 학생들을 격려했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행복한학교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한국어를 비롯해 공교육 못지않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10명의 학생들이 배움을 이어가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금 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워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국민들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김율리아 양(중3, 18세)은 “한국 학교를 다닐 때에 비해 공부하기가 쉽고 이해가 더 잘 된다”며 “앞으로 이곳에서 열심히 배워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산=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존중”

불교상담개발원 등 종교·시민·사회단체
자살예방 문화축제…선언문 서약서 배포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유마거사의 마음으로 담은 문화축제가 지난 17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열렸다.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스님)은 이날 불교를 비롯해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유교 등 각 종교계와 자살예방 활동과 관련된 민간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살예방을 위한 종교통합 문화대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10시 각 종교계와 민간단체가 참여한 자살예방 관련 홍보부스 운영을 시작으로 열린 축제는 ‘생명지킴이 7대 선언문’ 낭독으로 절정을 이뤘다. 참가단체들은 선언문에서 △생명은 최우선의 가치로 존중되어야 한다 △생명에 대한 위협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자살과 타인의 생명은 문제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구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밝히고 사회와 정부에서 자살을 예방

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나와 남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생명서약서’를 배포하는 한편 토크 콘서트를 통해 삶의 소중함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개그맨 이승환 씨의 사회로 열린 토크 콘서트는 한국명상치료학회에서 활동 중인 해타스님과 김준형 아티테라피 소장이 참가해 자살예방과 생명의 존엄함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했다.

도현스님은 “눈 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번 물에 떠올라 우연히 나무 판자를 만나는 것만큼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어렵다. 소중한 생명을 잘 가꾸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며 “자살률을 줄이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이번 축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안직수 기자 jsahn@ibulgyo.com



지난 16일 여주 ‘주어사지 복원’을 위한 발원 기도 현장. 관할 용주사 본·말사는 물론 서울 봉은사도 동참했다.

여주 ‘주어사지 복원’ 기도

2교구 용주사 본·말사
서울 봉은사도 힘 모아

주어사 역사계승과 원형복원추진위원회(위원장 민학기, 제2교구신도회장)는 지난 16일 여주 주어사지(走魚寺地)에서 ‘주어사 원형복원을 위한 발원 기도’를 거행했다. 주어사 역사계승과 원형복원추진위원회는 2교구신도회를 중심으로 주어사지에서 매월 2차례씩 정기 발원기도를 갖고, 주어사를 원형복원한 뒤 불교와 가톨릭이 공존하는 종교화합의 상징적 유적으로 계승하길 바랐다.

80여 명이 참가한 이날 발원 기도에는 여주 신록사 주지 청곡스님, 이천 영월암 주지 보문스님, 제2교구본사 용주사 기획국장 법진스님과

사회국장 행관스님, 민학기 2교구신도회장 등 2교구본사 본·말사 스님과 신도가 참석했다. 특히 일제강점기 창경궁으로 옮겨진 뒤 방치되고 있는 ‘고려 오층석탑’의 이운을 추진 중인 서울 봉은사의 교무국장 혜찬스님과 최정수 신도회장 등 봉은사 사부대중도 동참해 역사바로세우기 불사에 동참했다. 봉은사는 여주 일대를 순례할 때마다 주어사지를 필수코스로 선정해 성지순례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밝혀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주어사 역사계승과 원형복원을 위한 발원문 낭독과 구호 제창에 이어 주어사지 일대를 석가모니불 정경으로 둘러 주어사지의 원형 복원을 서원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조계사, 아름다운동행에 2300만원

서울노인복지센터 비롯
불교계 단체 4곳 지원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과 지역사회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조계사가 불교계 단체 지원에 정성을 보냈다.

서울 조계사(주지 원명스님·사진)는 지난 17일 한국불교역사문

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전달식을 갖고 아름다운동행에 자비나눔 기금 2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금 전달을 위해 조계사는 지난 10월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대성하이텍, 천호식품, 샘표간장 등

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서울 종로구 저소득층 아동과 국제협력개발단체인 로터스월드 후원 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바자회를 개최했으며,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바자회 수익금 전액을 동행에 전달하게

됐다. 이날 조계사가 기부한 기금은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서울노인복지센터에 1000만원, 종로노인종합복지관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500만원, 로터스월드 300만원이 각각 지정 기탁된다.

전달식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애쓰셨다. 기금 전달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계사 주지 원명스님은 “조계사 직장직능 전법팀이 불자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바자회를 개최해 마련한 수익금으로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에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비나눔 기금 전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배상문 프로 우승상금 5000만원

탄자니아 농업기술고
건립 기금으로 전달



지난 9일 한국프로골프 코리아 투어 신한동해오픈 2연패를 달성한 프로골프 배상문 선수(사진)가 아프리카 농업학교 건립을 위해 정성을 보냈다.

배상문 프로는 지난 18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

서 기금 전달식을 갖고 아름다운동행에 5000만원을 전달했다. 배상문 프로는 지난 2008년부터 아름다운동행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600여만원을 동행에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기금 전달은 배상문 프

로가 신한동해오픈 우승 상금 2억 원 전액 이웃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뜻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배상문 프로가 전달한 5000만원은 탄자니아 농업기술고등학교 건립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전달식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

은 “경기하는 모습을 잘 지켜봤다. 축하한다. 우승상금을 전액 기부한다고 들었다”며 “탄자니아 학교 건립 기금을 전달해줘 고맙다. 학교 건립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내년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군대 간 자녀에게 불교신문을 보냅니다

‘안전한 군생활의 길잡이’ 불교신문이 있습니다

“군대간 자녀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자녀와 친지를 군대에 보낸 불자 여러분,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군대에서 들려오는 걱정스런 일들이 혹시 우리 자녀와 친지에게 일어난 일이 아닐까 걱정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한 장의 불교신문’을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와 친지의 내무반으로 배달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려운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와 친지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처로 더 안전한 군 생활을 할 수 있고

원만한 내무생활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군대는 1인-1종교 활동을 권하고 있음으로

‘한 장의 불교신문’은 군생활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든든한 정신적 기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장의 불교신문’에 불보살님의 가피를 담아 원만한 군 생활을 마치도록 도와줍니다.



불교신문
법보시 운동



- 문의 전화 02-730-4488
- 법보시 1부 월 5,000원(1년 60,000원)
- ARS 후원전화 060-700-0048(1통당 5,000원)
- 문서포교 후원계좌 우리은행 082-120719-01-601(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